

## 5. 現 금융시장에 대응한 기업 재무 전략

### □ 필요성

원화 강세로 외화 부채의 실질 부담 경감. 저금리로 부채 구조의 조정 필요성 대두

#### - 금융시장의 변화

- 원화 강세로 말미암은 美달러화 등 외화 유동성 증대와 이에 따른 국내 금융권의 원화 유동성 추가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음
- 시장 금리가 8%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, 금융기관들은 주식시장에서의 자산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함

#### - 기업 금융에 주는 시사점

- 원화 강세로 인한 대외 부채의 실질 부담 경감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들은 외화의 현금흐름 개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한편, 국내 기업들은 ▷부채 비율의 축소 ▷저비용의 자금 조달 필요성에 따라 유상증자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

### □ 기회/위협 요인

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은 낮아지고 있지만, 고금리 부채의 조기 상환 등 부채 구조 조정 여건은 금융권 반발, 만기구조 불일치 해소 수단의 미흡 등으로 불리

#### - 현재 기업금융의 기회/위협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(기회 요인) ▷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율 증가로 회사채 발행 여력 증대 ▷은행등의 자산운용 수익 확보를 위한 증권 투자 확대는 주식시장 부양 요인으로 작용 ▷저환율을 활용한 원화표시 해외 증권 발행 유리
- (위협 요인) ▷유상증자 물량 집중에 따른 주가 하락 압력 ▷고금리 부채의 조기 상환에 대한 대출기관의 반발과 상환 비용 요구 ▷은행등의 단기위주 자금운용 선호에 따른 기업의 중장기 대출자금 확보난

#### - 시사점

- 대기업, 중견 기업들은 해외 및 국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바람직할 것임. 그러나 최근 유상증자 물량이 대규모로 집중됨에 따라 여타 자금조달 수단

## 주요 경제 현안

이 절실해짐

- 대부 기관 반발, 금리 조정난 등으로 부채 만기구조 조정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

### □ 재무 전략

자금 가용성과 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증권과 차입금 규모를 적절히 배합하고 회사 별로 적정 차입금리 목표를 책정. 또한 국내외 자금조달 수단의 종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 제고

- 기업 자금 조달에 있어서 차입과 증권 발행의 적절한 배합 전략이 바람직
  - 기존 차입금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금리 조정을 통해 자금의 가용성 확보와 금리 비용 절감을 피할 필요가 있음. 또 업종별로 경상이익률 전망이 다르므로 적정 차입 금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  - 한편, 증권 발행에 있어서 유상증자에 집중되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환 사채, 신주인수권부 채권 발행 등을 병행 추진
  - 다양한 금융 위험의 발생에 대비한 장단기 부채의 만기 불일치 해소와 변동-고정 금리부 자금조달의 적절한 운용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
  - 여신 규제에 대응해 통화·금리 스왑, 프로젝트 파이낸싱, 자산담보부증권(ABS)의 발행 등 부채의 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부외 금융 기법을 적극 활용
- 국내외 부채의 통합 관리(Liability Management) 추진
  - 국내외 자금조달 수단의 통합 관리를 통해 각 장점을 활용하여 조달 비용 절감, 가용성의 제고, 금융 위험의 회피 등 부채 관리의 효율성 제고
  - 국제신인도의 개선 추세에 발맞춘 해외 부채 상환 및 자금조달 계획 마련

#### <국내외 자금조달의 장단점 비교>

|    | 국내 자금조달  | 해외 자금조달   |
|----|--|---|
| 장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외 조달보다 환 위험, 신용 위험 등이 적음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단기, 변동금리부/고정금리부 등 조달 수단의 다양성</li> <li>· 보유자산·부채 만기 불일치 관리 용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단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기 변동금리부 대출위주의 단순한 자금조달 구조</li> <li>· 보유자산·부채 만기 불일치 위험성 높음</li> <li>- 신용평가 관행의 미정착으로 차등폭이 큰 가산금리 대신 총량 규제에 의존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 기업의 대외신인도 여전 취약</li> <li>· 자금 가용성이 극히 제한적이며, 가산금리도 높음</li> <li>- 기업 스스로의 금융위험 관리의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됨</li> </ul> |

(임 진 국 [jklm@hri.co.kr](mailto:jklm@hri.co.kr) ☎724-4018)